

소비 촉진에도 남아도는 쌀... “생산량 과감하게 줄여야”

농식품부, 초과 생산 20만t 격리
비축량·비축 비용만 늘어나

유통업계, 음료·가공식품·간식 등
쌀 소비촉진 위한 상품출시 잇따라
“정부, 농작물 변경 적극지원 필요”



지난 4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쌀 비축 비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쌀 생산이 수요를 넘어서면 양곡관리법에 의해 초과 물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도 쌀생산량에는 변동이 없어 비축량·비축비용만 늘어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나섰다. 하지만 쌀 소비를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선 쌀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쌀 20만톤(t)을 격리하겠다는 방침 외에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손실을 포함한 쌀 비축비용은 1조7700억원으로, 2022년(1조1802억원)보다 50% 가량 늘었다. 이는 공공비축제도가 도입

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 8월 말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15만6000t으로, 유엔식량농업 기구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80만 t)의 1.4배가 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나해에 쌀 재고 물량이 많다 보니 이에 따른 관리 비용 등이 많이 들어 일반회계 전입금이 불어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식량 안보나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쌀을 사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쌀의 비축량과 비축비용은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값 안정을 위해 쌀을 추가적으로 사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쌀 생산이 소비량보다 12만8000t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이보다 많은 20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10만5000t)의 거의 2배 되는 수치다. 시장격리란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업계 쌀 소비 촉진 위해 쌀 활용한 다양한 상품 선보여

이같은 상황에 유통업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남아도는 쌀을 활용한 음료, 가공식품, 간식 등을 선보이고 있는 것.

쌀 소비 촉진을 늘리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세계푸드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서울 성수동에 있는 유명 카페 8곳과 협업한 행사 ‘카페 라이스 베이스드’를 열었다. 협업 카페들은 신세계푸드의 식물성 음료인 ‘유아워유잇 식물성 라이스 베이스드’를 활용해 라이스 라떼·라이스크림·라이스 빙수·라이스 푸딩·라이스 칵테일·라이스 콘파나 등 메뉴들을 개발했다.

라이스 베이스드는 국산 가루쌀, 현미유 등 100% 식물성 원료를 넣은 게 특징이다.

오리온은 최근 100% 국산 쌀로 만든 ‘뉴루지’를 선보였다. 일반적인 스넥과 다르게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웠으며 100% 국산 쌀을 사용해 가볍고 바삭한 식감과 달콤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룬 쌀과자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최근 선보인 ‘라이스 글레이즈드’는 쌀가루를 넣은 반죽으로 만들어 단백질이 특징인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자사 브랜드 ‘햇반’을 활용한 ‘얼티브 프로틴

쌀밥맛’을 선보였다.

하림, 오투기, CJ 등이 선보이는 즉석밥 시장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쌀 자체의 생산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쌀을 비축하고 사들이고, 유통업계가 아무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고 해도 근본적인 쌀 생산 자체가 줄지 않으면 이같은 악순환은 지속될 거라는 우려에서다.

업계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금 일정 부분의 쌀을 사들이는 건 올바른 선택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쌀 자체의 생산이 과잉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쌀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다른 농작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11월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술, 가공식품 등에 쌀을 적극 활용해 소비 저변을 넓히고 한국 쌀을 해외진출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쌀 생산 조절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에 유럽 첫 PE시스템 공장 구축

(전기차 핵심 부품)



슬로바키아 정부와 투자협약 체결
글로벌 전동화사업 기회 확대 전략



현대모비스가 유럽 지역 세번째 전동화 거점으로 구축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전동화 신공장 조감도.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수주 100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동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Power Electronic)시스템 공장을 신규로 구축한다. 유럽의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스텔란티스, 볼보 등에 전동화 부품을 수주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슬로바키아 노바키 지역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시스템 신공장 구축과 기존 질리나 공장 내 전기차용 제동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공장

신축을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체코와 스페인 공장에 이어 유럽 지역 세번째 전동화 거점이자 유럽 첫 PE 시스템 생산 거점이다. 이는 유럽 내 보호 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속도조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전동화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체코에서 배터리 시스템(BSA)을 생산 중이며, 스페인

에는 폭스바겐 공급을 위해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짓고 있다. 이번 슬로바키아 노바키 공장은 전동화 분야 또다른 핵심 부품인 PE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한 유럽 첫 생산 거점이다. PE 시스템은 전기모터와 인버터, 감속기가 통합된 전동화 구동 장치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규석 사장은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원 아래 노바키 지역에 건설하는 PE시스템 신공장을 중심으로 중부 유럽 지역에서 전동화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4년 초 슬로바키아 법인(MSK)을 설립한 뒤 질리나 지역에 모듈 공장을 구축한 이래, 20년 넘게 슬로바키아 정부와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슬로바키아 새 거점 구축에는 약 35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새 전동화 생산 거점은 축구장 14개 크기인 약 10만 57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다. 총 25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유럽 지역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PE시스템 생산 거점이 마련된다. 기존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 부지 내에 신축되는 제동시스템과 에어백 생산 공장에도 약 950억원이 투입된다.

슬로바키아에는 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포진해 있고, 볼보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유플러스 AI 스타트업 발굴·육성 창업지원 ‘쉬프트’ 가동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을 포함한 AI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쉬프트(shift)’를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쉬프트에 선발된 스타트업에겐 ▲ 전용 펀드를 통한 자본투자 ▲ 기술 지원 ▲ 사업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사업 협력도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미래 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고, 급성장하는 AI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익시(ixi)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화 검증(PoC)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미래 기술이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AI를 포함한 혁신적인 미래 기술’이며 프로그램 지원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시드(Seed)에서 시리즈(Series) A 단계의 석박사 기술 인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대학 연구소 창업팀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연구팀은 사업 계획서 혹은 사업화 검증 계획서를 LG유플러스 쉬프트 공식 지원 사이트로 제출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전자금융업자 제재근거 마련 ‘티메프 사태’ 재발 막아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 등과 ‘S.O.S. Talk’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사진)은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입업진흥공단 경기

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경기남부지부와 함께 ‘S.O.S. Talk’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건의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참석 중소기업 대표들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기도 이전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A사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

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



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및 인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면서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